



월드투는 이번 기획으로 가정의 레저 및 스포츠 문화를 제조명하였다. 지난 달 전국체전에서 10년 연속 3관왕에 오른 역대 선수 장미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현직 중진 스포츠 기자가 선정한 대한민국 스포츠사를 빛낸 인물이자 비인기 종목의 실용을 넘어 스포츠와 스포츠인을 대변하는 올림픽 대표팀 만연니, 이제는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는 기도의 손, 장미란을 만났다.

세계를 들어 올린 아름다운 손, 역도 선수 장미란을 만나다

☎ 인터뷰어: 신희영 (본지 에디터) / 심외 및 김수: 배성민 (강동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장미란 선수, 본인 소개와 신앙 배경을 부탁드립니다.

역도 선수 장미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가장 많이 반겨주시고 알이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역도 선수 장미란이라고 인사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곳곳에서 소개되는데요, 크리스천으로서 자기 소개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축스러워요. 주변에서 신앙이 좋다고 봐주시는데 사실 저는 부족하고 혼란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경기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주실 때 그저 좋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되었나요?

모태 신앙이에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던 것 같아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다녔고 늘 일요일은 교회는 날이라고 습관처럼 다녔죠. 주일학교 때는 하나님만 믿는 거라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나 성경 말씀보다 교회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달란트 시장 같은 것들이 재미있었어요. 그러다가 운동 시작하고 나서는 달란트 시장 같은 것들이 재미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믿음도 그때부터 조금씩 성장한 것 같아요.



장미란 세계 역대 사상 가장 위대한 여자 선수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여자 자 최중량급(47.5kg) 은메달 이후 10년 가까이 세계 정상급 선수로 군림했다. 이는 역대 여자 최중량급에서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2005·2006·2007·2008년 세계 선수권대회 4연패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인상 140kg과 용상 168kg을 들어 올려 합계 328kg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우승함으로써 4년 간 세계 정상에 자랐으며,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도 우승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역도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다. 또한, 2012년 현재까지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수립한 세계신기록(용상 187kg)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2년 2월 비인기 종목 지원 및 스포츠 꿈나무 육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장미란 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인론에서 독실한 크리스천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독실한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신앙이 온전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는 하지만 늘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으면서도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열심히 믿으시는데 자녀는 안 믿는...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의아했어요. 저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으셨고 못 가게 하셨어요. 그 당시 아빠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제 시험을 위해 기도도 하시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서두르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운동하면서 그런 걸 더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 없이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저 선수들은 어떤 마음으로 운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든든한 힘이시니까요.

2012년 초 장미란 재단을 설립했는데,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부담되지는 않나요?

사실 재단을 설립할 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꺼려져서 고민했었는데 마땅히 사용할 이름이 없었어요. 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재단을 알리고 같이 활동하는 데도 좋을 것 같다고 주위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름은 장미란 재단이지만 "함께" 어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재단입니다.

어떻게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데, 그리고 시작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해련과 사랑을 받았지만, 태릉 선수촌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선수들 중에는 인기도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선수들도 있지만, 상황이나 형편이 어려운 선수들도 많아요. 아예 생활 자체가 어려운 선수들도 있고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나중에 저런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역시 운동을 시작할 때, 연도가 비인기 종목이라 여러 가지로 지원이 부족했거든요. 그저 비인기 종목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팀 비자(Team Visa) 후원 선수가 되면서 비자에서 제 이런 생각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었지요.



“재능도 있고 신체 조건도 탁월한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장비 등 비용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운동하면서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초,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비자라는 단체에서 후원하는 유일한 우리나라 선수인데, 비자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하는지, 또 이런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이 있는지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도 하겠지만, 비인기 종목을 후원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어쩌면 처음이 아닐까도 싶어요. 사실 비인기 종목에서 믿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최근 분위기잖아요.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 사업이 쉬운 일도 아니고 많지도 않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비인기 종목을 돕는 사업에 관심을 갖기까지 든든한 조력자나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아무래도 부모님과 동료 선수들이죠. 부모님이 제가 생각만 했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운동을 해서 대외적인 부분은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또 제가 이런 것을 만들더라도 호응해 주고 지지해주는 동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같은 마음을 품은 주위 동료들과 선수들이 있어서 든든해요. 함께하며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소외 계층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지역 스포츠 기반 활성화 사업, 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 운동선수들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까지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준비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애착이 가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저는 그중에서도 스포츠 멘토링 사업이 가장 애착이 가요.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사업을 해도 사실 저 혼자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고, 함께하는 선수들이 제가 이런 것을 꿈꾼다고 했을 때 흔쾌히 동참해 주었어요. 일회성의 금전적 지원 같은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선수들이 스스로 멘토가 되어 직접 꿈나무를 만나서 소통하며 도와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눠주는 사업을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지역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갈등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던 점은?

재능도 있고 신체 조건도 탁월한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장비 등 비용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운동하면서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초,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때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꿈나무들에게 올림픽 선수들의 한 마디는 큰 힘이 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저는 올림픽 선수들과 꿈나무들의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었고, 그것이 꾸준히 이어지게 하고 싶었어요. 어려운 꿈나무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명씩 돕다 보면,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이런 지원이나 후원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라는 꿈나무들에게 정미린 선수기 해주고픈 조연은 무엇인가요?

어려서 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환경도 아니었고, 그러다보니 나는, 우리집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에 쉽게 빠지게 되고 점점 더 불평, 불만만 늘어갔어요. 그러다가 역도를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꿈도 풀 수 없었고, 아무런 목표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던 제 인생이 역도를 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고, 뭘 뛰어나게 잘해서 늘 칭찬받던 아이도 아니었지만 역도를 하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을 누렸어요. 뭉치를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는 것에도 많이 감사하고... 역도 선수를 하면서 많이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지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10년 전이나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이게 뭐가 힘든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요. 내가 역도 선수라는 것에 늘 감사해요. 나에게 주어진 언뜻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 우습게 생각했던 것들이 제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화려하거나 대단한 시작은 아니었지만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성실히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이, 널리 쓰시는 것 같아요. 높이 쓰인다는 것이 반드시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항상 묵묵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바른 체육 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체육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세요'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응원 문화를,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보면' 만들어 지는 건데, 그 '하다보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응원을 '하다보면' 응원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응원은 먼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같아요. 마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선수가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 선수들은 내 목표

에 최선을 다하라는 마음뿐 아니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런 마음은 로 모면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시역의 비전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재단은 어떻게든 만들어 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인데, 재단에 관련하여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소외된 계층, 어려운 아이들을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일단 스포츠 재단, 그것도 비인기 종목이라 사실 범위가 넓으면 넓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주위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들어보고, 각 종목의 선수들의 추천으로 도움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각 종목별로 스포츠 멘토링 그룹을 준비하고 있어요. 꿈나무들이 지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림피 스타의 추천과 지원을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잖

아요. 선수들도 그렇게 지원하고 멘토링을 하다보면 자신이 추천한 꿈나무가 도움을 받는 것도 알 수 있고, 추천한 꿈나무들이 지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서로 교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 싶고, 후에 스타와 꿈나무가 아니라 정말 같은 운동선수로서의 고충도 들어주고 나눔도 갖는 하나가 되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정미린 씨가 그러보는 미래의 지화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점이 되고 싶습니까?

역도 선수로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했고 또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기억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는 이제 운동선수로서의 모습이 진부가 아니라 운동을 그만둬도 스포츠인으로 따듯하고 뭉치 꿈과 희망을 지속적으로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역도로 인해 제 인생이 바뀌었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었고, 인생을 신나고 재미있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를 보시는 분들이 저를 통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더불어 (월드뷰) 독자와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다면?

요청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어려운 분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실의에 빠진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앞으로의 일들에 우연이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꿈꾸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소망하면서 사는 게 어떨까 해요.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 많지만, 그런 것들에서도 꿈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배성민 강동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교수,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이력박사, 스포츠심리학 전공),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 이사과 한국 대학 체육진흥 이사를 역임하였다. 영동제일교회 청년부 부장으로도 사역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웨이트레이닝 방법론', '헬스 앤 다이어트' 등이 있다.